退溪와 芝山의 『周易』 解釋

김인철*

‖ 차 례 ‖

1. 머리말
2. 當代의 諸訓釋에 대한 退溪의 辯訂 : 『周易釋義』
3. 象으로 義理를 補翼한 芝山 : 『易象說』
4. 맺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퇴계의 『周易釋義』와 지산의 『易象說』에 나타나 있는 解易樣相을 검토함으로써 『周易』해석에 있어 退溪學派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성격의 一端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義理的 解釋에 입각한 정확한 訓釋과 象으로 의리를 補翼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구절에 대한 퇴계의 석의가 없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석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程傳』을 훈석의 일차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역석의』가 지니고 있는 의리 위주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산의 『역상설』은 비록 다수의 象數易學的 方式을 적용해 卦·爻辭를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근저에 엄연히 義理易學的인 논리가 주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역』해석의 특징을 象으로 義理를 補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周易釋義』와 『易象說』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전자는 퇴계 당대의 『주역』연구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줌은 물론 『주역』을 학문적으로 정초·토착화 시켰다는 점이, 후자는 퇴계학파내의 역학 사상의 긍정적인 발전을 성취하였다는 점이 각각 그 연구사적 의의로 인정된다고 지적하였다.

* 고려대

주제어 退溪, 芝山, 『周易』, 『周易釋義』, 『易象說』, 退溪學派, 象數易學, 義理易學, 『程傳』, 象

1. 머리말

지금까지 학계의 退溪에 대한 연구는 주로 道學者, 性理學者로서의 그의 면모를 顯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朝鮮의 儒學史 혹은 性理學史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그러한 접근 방식은 지극히 타당하고 올바른 것이었으며, 그로부터 얻어진 연구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퇴계학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은 물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분야를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연구 범위의 설정이 절실하게 요청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일단의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지고 있는 퇴계의 儒家 經典 解釋에 대한 탐구[1]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퇴계가 조선의 대표적인 正統 性理學者이고, 性理學 그 자체가 儒家經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성립한 思想體系임을 고려한다면 진작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져야했을 분야이기 때문이다.

---

1) 金慶天, 「退溪의 經典認識」, 『退溪學報』 제110집, 퇴계학연구원, 2001, 金映鎬, 「李退溪 『四書釋義』에 나타난 經學的 特徵」, 『退溪學報』 제110집, 퇴계학연구원, 2001, 崔錫起, 「退溪의 『詩釋義』에 대하여」, 『退溪學報』 제95집, 퇴계학연구원, 1997, 「조선 전기의 經書解釋과 退溪의 『詩釋義』」, 『退溪學報』 제92집, 퇴계학연구원, 1996, 賈順先, 「李退溪의 儒家 經學에 대한 繼承과 發展」, 『退溪學報』 제90집, 퇴계학연구원, 1996, 이 외에 2004년 6월 12일 경북대 퇴계연구소에서는 "退溪學派 經學의 特徵과 史的 展開(I)"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최석기, 「退溪의 『大學』解釋과 그 意味」, 이영호, 「退溪 『論語』 解釋의 經學的 特徵과 그 繼承樣相」, 홍원식, 「退溪學과 『孟子』, 그리고 孟子」, 엄연석, 「退溪學派의 『中庸』 解釋과 그 特徵」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퇴계의 '經書釋義' 가운데 하나인『周易釋義』를 중심으로 그가 당대의 訓釋들을 어떻게 辨析하고 있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 퇴계의『周易』에 대한 義理的 解釋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퇴계 晩年의 及門弟子로 독특하게 象으로써『주역』의 經·傳文을 해석하고 그를 통해 義理를 補翼하고자 하였던 芝山 曺好益(1545-1609)[2]의 解易樣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退溪學派가 보여주는『周易』解釋의 특징적인 性格의 一端을 究明하고자 하는 것이다.

2. 當代의 諸訓釋에 대한 退溪의 辯訂 :『周易釋義』

勉進齋(琴應壎: 1540~1616)가『四書釋義』말미에 附記한 '經書釋義後識'에 따르면『周易釋義』역시 다른 경서의 釋義와 마찬가지로 퇴계가 당시에 유통되던 諸家의 訓釋들을 모아 證訂하고 門人들과의 問辯을 통해 硏究한[3] 결과들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간주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그리고 비록 '諸家'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周易』경문과 전문에 대한 전면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구해 볼 수 없는 당대의 여러 양태의 訓釋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진지하게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서『周易釋義』는『周

2) 曺好益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인데, 그의 역학 사상과 관련해서는 琴章泰,「芝山 曺好益의 사상」,『退溪學派의 思想I』(集文堂, 1996)에 일부 소개되었고 엄연석,「曺好益 易學의 象數學的 방법과 義理學的 목표」(『大東文化硏究』 제38집, 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硏究院, 2001)이 있을 뿐이다.

3)『四書釋義』(『退溪學文獻全集』 16, 啓明漢文學硏究會 편, 1991), 8305~8306. "右經書釋義, 惟我退溪先生裒聚諸家訓釋而證訂之, 又因門人所嘗問辯者而硏究之, 皆先生手自淨錄者也."

易』譯解와 관련된 퇴계의 견해를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역석의』는 『주역』의 경·전문 가운데 총 744구절에 대한 당시의 훈석이 제시되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퇴계는 약 1/6에 해당하는 126구절에 대해 釋義를 달아 놓았다. 제시되어진 훈석은 한 구절에 대해 하나에서 많은 경우 다섯 종류에 이르기도 하지만 대개 하나 혹은 둘 셋이 대부분이며, '이 설은 틀렸다(此說非)', '틀린 듯 하다(恐非)', '이 설은 미진하다(此說未盡)' 등의 간단한 논평을 제외하면, 퇴계는 주로 『程傳』과 『本義』에 입각해 해당 구절 훈석의 是非를 변증하면서 그 정확한 譯解를 천술하고 있다.

그럼 이제 직접 『주역석의』의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그러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자.

① 賁其須　　賁ㅣ 그 須ㅣ로다
② 天之衢　　天의 衢ㅣ니
〔本〕 엇디 天의 衢오
何天之衢　　엇디 天의 衢ㅣ라 ᄒᆞ뇨
③ 入于左腹 (獲明夷之心 于出門庭)
左로 腹애 入ᄒᆞ야 明夷心을 獲ᄒᆞ야 門庭에 出ᄒᆞ도다.
○ 左腹애 入ᄒᆞ야 明을 夷ᄒᆞᄂᆞᆫ 心을 獲ᄒᆞ야 門庭에 나미로다.

위 글은 『주역석의』에 실려 있는 훈석들 가운데 일차적으로 퇴계의 '釋義'가 없으면서 석의가 없는 이유를 추단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을 적출한 것이다. ①은 賁卦 六二 爻辭를 훈석한 것인데 비록 퇴계의 석의가 없기는 하지만 일단 그 훈석의 정확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훈석의 근거가 되었던 『程傳』과 『本義』의 주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程傳) 卦가 賁卦가 된 것이 비록 (二와 上－필자) 두 효의 변화에 의한 것

이기는 하나 文明의 뜻이 重하니 二가 기실 賁卦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꾸밈의 道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다. 물건을 꾸민다는 것은 그 바탕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그 바탕을 근거로 하여 꾸밈을 더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수염의 뜻을 취하였으니, 수염은 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움직이고 그침이 오직 붙어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마치 善·惡이 꾸밈에 말미암지 않은 것과 같다. 二의 文明은 단지 賁飾이 될뿐이요, 善·惡은 그 바탕에 매여있는 것이다.[4]

(本義) 二는 陰柔로 中正에 있고 三은 陽剛으로 正을 얻었으나 모두 應與가 없다. 그러므로 二가 三에 붙어서 움직이니, '(턱을) 꾸미는 수염'의 象이 있다. 占친 자는 마땅히 위의 陽剛을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다.[5]

위『정전』과『본의』에 따르면 비록 主爻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6], 二의 성격을 꾸밈의 본질이나 속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효사인 '賁其須'는 마땅히 '꾸밈은 수염이다' 혹은 '꾸밈이란 수염과 같은 것이다'라고 번역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周易諺解』나 2종의『周易傳義大全』번역본에서는 모두 '그 수염을 꾸민다'[7]고 번역하여 경문과 주석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①은『정전』과『본의』의 내용을 온당하게 함축하면서 경문을 간명 직절하게 훈석하고 있는데, 퇴계가 ①에 대해 석의 없이 훈석만을 제시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러한 훈석의 정확성을 인정

---

4)『周易傳義大全』(보경문화사 영인, 1983), 賁卦. '傳 卦之爲賁, 雖由兩爻之變, 而文明之義爲重, 二實賁之主也. 故主言賁之道. 飾於物者, 不能大變其質也, 因其質而加飾耳. 故取須義, 須隨頤而動者也, 動止惟係於所附, 猶善惡不由於賁也. 二之文明, 唯爲賁飾, 善惡則繫其質也."

5)『周易傳義大全』(보경문화사 영인, 1983) 賁卦. '本義 二以陰柔居中正, 三以陽剛而得正, 皆无應與. 故二附三而動, 有賁須之象. 占者宜從上之陽剛而動也."

6) 賁卦의 主爻를『정전』은 六二로,『본의』는 六五로 간주하고 있다.

7)『三經諺解』(보경문화사, 1983), 555쪽 下左. "六륙二이는 그 須슈를 賁비 홈이로다."
金碩鎭 ;『周易傳義大全譯解』(上), 613쪽. (大有學堂, 1996)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上), 509쪽. (傳統文化硏究會, 1999)

한 결과라고 추단된다.

②는 大畜卦 上九 爻辭와 象傳의 구절을 훈석한 것으로, 효사에서는 『정전』과 『본의』의 해석을 따라 구별하고, 차이가 없는 象傳은 단일한 형태로 제시되어져 있다. 『주역석의』는 당시 통행되던 훈석 가운데 『정전』과 『본의』의 同異를 구별해서 오류없이 훈석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그대로 표출시켜 싣고 있는데 ②는 그러한 예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에 비해 明夷卦 六四 爻辭를 훈석한 ③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두 개의 훈석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 둘은 『정전』과 『본의』의 해석에 따라 재조정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자는 모두 『정전』과 『본의』의 해석을 전일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混淆되어진 불완전한 형태의 훈석인 것이다.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전』과 『본의』의 해석에 따라 明夷卦 六四 爻辭를 의미 위주로 번역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전) 陰邪한 소인인 六四가 어둡고 바르지 못한 방법(左)으로 暗君과 깊이 결탁하여(入于腹) 暗君의 마음을 얻어 홀리고서는(獲明夷之心) 밖으로 나아가 행한다(于出門庭)[8]

(본의) 君子인 六四가 어두운 곳(左腹)에 처음 들어감이니 밝음이 손상된 군자(明夷) 즉 六四 자신의 뜻을 얻어 멀리 떠나가도다.[9]

---

8) 참고로 明夷卦 六四 爻辭의 『정전』 全文을 제시해 둔다.
『周易傳義大傳』, 「明夷卦」. "傳 六四以陰居陰而在陰柔之體, 處近君之位, 是陰邪小人居高位, 以柔邪順於君子也. 六五明夷之君位, 傷明之主也, 四以柔邪順從之以固其交. 夫小人之事君, 未有由顯明以道合者也, 必以隱僻之道, 自結於上. 右當用, 故爲明顯之所, 左不當用, 故爲隱僻之所. 人之手足皆以右爲用, 世謂僻所爲僻左, 是左者隱僻之所也, 四由隱僻之道, 深入其君, 故云入于左腹. 入腹, 謂其交深也. 其交之深, 故得其心. 凡姦邪之見信於其君, 皆由奪其心也; 不奪其心, 能无悟乎. 于出門庭, 旣信之於心, 而後行之於外也. 邪臣之事暗君, 必先盡其心而後能行於外."

9) 참고로 明夷卦 六四 爻辭의 『본의』 全文을 제시해 둔다.

위 번역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정전』과『본의』는 六四, 入于左腹, 明夷, 于出門庭 등 대부분의 효사 구절에 대한 의미 부여가 상이함으로 인해 서로 융통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며, 특히 入于左腹과 明夷는 ③의 훈석이 각각『정전』과『본의』의 해석을 뒤섞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入于左腹을 '左로 腹애 入ᄒᆞ야'로 훈석한 것은 左를 隱僻之所로 보아 入于左腹을 隱僻之道로 윗사람과 깊이 결탁한 것으로 해석한『정전』의 의미를 따른 것이며, '左腹애 入ᄒᆞ야'로 훈석한 것은 左腹을 幽隱之處로 간주하면서도 六四가 上卦의 첫 번째 효라는 점을 중시, 그 어두움이 얕은 단계(居闇地而尙淺)로 해석한『본의』의 의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군자가 아직 그 밝음의 손상됨이 적은 까닭에 멀리 떠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훈석한 '明夷心을 獲ᄒᆞ야 門庭에 出ᄒᆞ도다'는『본의』의 해석을 따른 것이며, 邪臣이 暗君의 신임을 얻은 연후에 밖으로 사악한 짓을 행한다는 뜻으로 훈석한 '明을 夷ᄒᆞᄂᆞᆫ 心을 獲ᄒᆞ야 門庭에 나미로다'는『정전』의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③의 훈석을 훈석의 근거라는 점에서 표시해 보면 첫 번째 훈석은『정전』+『본의』로, 두 번째 훈석은『본의』+『정전』의 형태로 정리되어져 양자 모두 불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③의 훈석과 관련해서는 마땅히 퇴계의 석의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존하는『주역석의』에는 석의가 빠져있다. 성급히 단언할 수는 없으나 퇴계가 미처 석의를 붙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판본이 壬亂이후 원본이 소실되어 士友間

『周易傳義大傳』,「明夷卦」. "本義 此爻之義, 未詳. 竊疑左腹者, 幽隱之處, 獲明夷之心于出門庭者, 得意於遠去之義. 言箕而得此者, 其自處當如是也. 蓋離體, 爲至明之德, 坤體, 爲至闇之地, 下三爻明在闇外. 故隨其遠近高下而處之不同. 六四以柔正居闇地而尙淺, 故猶可以得意於遠去. 五以柔中居闇地而已迫, 故爲內難正志以晦其明之象. 上則極乎闇矣, 故爲自傷其明以至於闇, 而又足以傷人之明, 蓋下五爻皆爲君子, 獨上一爻爲闇君也."

에 전승되던 판본에 약간의 교정을 거쳐 간행된 것[10]임으로 인해 퇴계의 석의가 모두 반영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추측되어진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항목수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전』과 『본의』에 따라 훈석이 구별되어져야 할 경우로는 復卦 上六 爻辭 중 '以其國'이라든가 益卦 六四 爻辭 중 '利用爲依遷國', 困卦 九三 爻辭 중 '爲我心惻' 등을 꼽을 수가 있겠다.

지금까지 『주역 석의』에서 퇴계의 석의가 없는 훈석들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제 퇴계의 석의가 있는 훈석들의 경우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① 晉如摧如　　晉호미 摧호미니
② 有孚惠心　　惠心을 孚로 둔논디라
　　一云. 孚를 두미 惠홀心이라
③ 不耕穫　　一. 耕티 아니ᄒᆞ야 穫ᄒᆞ며
　　二. 耕ᄒᆞ야 穫호려 ᄒᆞ논주리 아니며
　　三. 耕ᄒᆞ야 穫호려티 아니며
　不菑畬　　同上

위 글은 『주역석의』의 훈석 가운데 훈석이 하나에서 셋에 걸쳐 있으면서 퇴계의 석의가 부기된 예들인데, 각각의 경우를 검토해 봄으로써 퇴계의 석의가 지닌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晋卦 初六 爻辭 중 晉如摧如를 훈석한 ①에 대해 퇴계가 붙인 석의의 경우이다.

> 지금 살펴보건대, 이 구절은 吐가 잘못되었고 따라서 훈석도 온당하지 않다. 『정전』에 이르기를, '나아감을 이루거나 나아감을 이루지 못하거나 오직 바름을 얻으면 吉하다'고 하였으니, 그것에 근거하면 마땅히 '晉如摧如애'라고 해야 하고 훈석은 '晉커나 摧커나 호매'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만일 『본의』를 따른다면

10) 『四書釋義』, 8306쪽. "壬辰兵燹之慘, 手本亦失, 後學益爲之悵悵然. … (中略) … 於是求索士友間傳寫之本, 略加讎校而刊之. 始役於己酉之春, 三閱月而就緒."

吐와 訓釋은 모두 마땅히 위와 같아야 할 것이다.[11]

퇴계는 제자들에게『본의』를 주로하고『정전』을 겸하는 讀易方法을 권면하면서도[12] 吐나 訓釋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정전』을 기준으로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世祖에 의해 처음『정전』으로 口訣이 정해지고[13] 그 이후 지속되어진『정전』존숭의 영향력 때문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주역석의』에서 구별을 안한 경우는 그만두고라도 구별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정전』의 해석에 따른 훈석을 먼저 제시하고『본의』의 해석에 의한 훈석을 뒤에 제시한다거나, 위의 인용문처럼『본의』에 의한 훈석으로는 옳다고 하더라도『정전』을 기준으로 한 토와 훈석에 부합되지 않을 때, 모두 잘못되었거나 온당치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정전』위주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①에 대한 석의처럼 퇴계의 석의에서 강한『정전』위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鼎卦 九三 爻辭 중 '虧悔'에 대한 석의[14]도 꼽을 수가 있겠다.

②는 益卦 九五 爻辭 중 '有孚惠心'에 대한 당시의 훈석들인데 퇴계는 "疑當云惠心에 孚를 둬 ᄒᆞᄂᆞᆫ디라. (아마 마땅히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에 至誠을 갖고 하는지라)"라고 간명하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두 훈석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 퇴계의 석의가『정전』의 "九五의 德과 재주와 지위로서 마음 속의 至誠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롭게 하려는데 있

11)『周易釋義』, 8329쪽. "今按, 此句吐誤, 故釋之亦未穩. 傳云遂其進不遂其進, 唯得正則吉, 據此則當云晉如摧如애, 而釋云晉커나摧커나호매, 可也. 若從本義, 則吐與釋, 皆當如上."

12) 李滉,『退溪集II』, 권26「答鄭子中」, 106쪽 下右. (한국문집총간 30, 민족문화추진회, 1989). "讀易, 欲以本義爲先, 此亦滉從來所見如此. …(中略)… 主本義兼程傳, 以還潔淨精微之舊, 正有望於高明之今日也."

13) 李忠九,「經書諺解研究」, 14쪽~15쪽.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89.

14)『周易釋義』, 8338쪽.

다"[15]는 주석에 근거한 正解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③은 无妄卦 六二 爻辭 중 '不耕穫 不菑畬'에 대한 당시 3종류의 훈석을 제시한 것인데 퇴계는 '不耕穫'의 훈석들만을 거론하고 그에 대한 석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不菑畬'는 따로 논의하지 않고 '同上'이라는 말로 대신하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③에 대한 퇴계의 석의와 『정전』의 주석을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금 살펴보건대, 이 爻辭와 象傳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정전』의 처음(初), 중간(中), 끝(末) 세 곳의 다른 점을 분별하고, 또 반드시 『본의』의 뜻을 분별하여 각각 귀결점이 있게 한 연후에 글을 따라 訓說하면 거의 분명할 것이다.
>
> 지금 자세히 고찰해 보건대, '不耕ᄒᆞ야 穫하며'라는 吐는 바로 『정전』의 '갈지 않고서 거둔다(不耕而穫)'는 說이니, 마땅히 첫 번째 훈석을 따라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의 두 훈석은 말은 비록 다른 듯 하나 뜻은 기실 귀결처가 같은 것으로 『정전』에서 象傳을 해석한 뜻이니, 그 뜻을 가지고 와 이 구절(즉 不耕穫－필자)을 설명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 『본의』를 따른다면 마땅히 '耕ᄒᆞ며 穫디 아니ᄒᆞ며'라고 하여야 한다.[16]

> ㉮ 무릇 이치에 당연한 것은 妄이 아니요, 사람이 作爲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妄이다. 그러므로 '耕穫'과 '菑畬'로 비유하였다. 六二는 中位에 있으며 正을 얻었고, 또 五의 中正함과 應하며, 動體에 있으나 柔順하여 움직임이 中正함을 따름이 되니, 바로 无妄한 자이다. 그러므로 无妄의 뜻을 지극히 말하였다. 耕은 농사의 시작이며 穫은 끝을 이루는 것이다. 밭이 1년 된 것을 菑라 하고, 밭이 3년 된 것을 畬라 한다. '갈지 않고서 수확하며, 1년 된 밭을 만들지 않고서 3년 된 밭이 된다'는 것은 앞장서서 그 일을 만들지 않고 사리의 당연한 바를 따름을 말한 것이다. 앞장서서 일을 만든다면 이는 人心으로 作爲한

15) 『周易傳義大全』, 「益卦」. '[傳]…以九五之德之才之位, 中心至誠在惠益於物.…"

16) 『周易釋義』, 8323쪽. "今按, 讀此爻象, 須先辨程傳初中末三處之異, 又須辨本義之旨, 各有歸宿, 然後隨文訓說, 庶可分明. 今詳, 不耕ᄒᆞ야穫ᄒᆞ며之吐, 是卽程傳不耕而穫之說, 當從第一釋也. 若第二第三兩釋, 辭雖若異, 意實同歸, 蓋程傳象解之意, 以此移說此句, 恐未當也. 從本義則當云耕ᄒᆞ며穫디아니ᄒᆞ며云云."

것이니 바로 妄이요, 일의 당연한 바를 따른다면 그것은 이치를 따라 사물에 應하는 것으로 妄이 아니니, 穫과 畬가 그것이다. ㉯ 밭을 갈면 반드시 수확이 있고, 1년 된 밭을 만들면 반드시 3년 된 밭이 있게 되니, 이는 事理가 본디 그러한 것이요, 마음과 뜻으로 조작한 바가 아니다. 이와 같이 하면 无妄이 되니, 망녕되지 않으면 가는 바가 이로워 해가 없는 것이다. ㉰ 혹자가 말하기를 "聖人이 制作하여 天下를 이롭게 하는 것은 다 단서를 만드는 것이니, 어찌 妄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聖人은 때에 따라 制作하여 風氣의 마땅함에 합하는 것이요, 일찍이 때에 앞서서 열어 놓지는 않았다. 만약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한 聖人이 다 만들었을 것이니, 어찌 여러 聖人이 뒤이어 나오기를 기다렸겠는가. 때가 바로 일의 단서이니, 聖人은 때에 따라 하였던 것이다."[17]

퇴계가 석의에서 初,中,末이라고 한 부분을 두 번째 인용문『정전』에서는 ㉮,㉯,㉰로 표시하였다. ③에 대한 퇴계의 석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계가 지적한 것처럼,『정전』의 ㉮,㉯,㉰에 대해 분별해서 파악해둘 필요가 있겠다. 우선『정전』에 나타나 있는 六二의 성격을 정리해 보자. 六二는 下卦의 中正한 자리에 있고 위로는 陽剛中正함으로 尊位에 있는 九五와 陰陽正應의 관계에 있어 그의 행동이 모두 中正함에 부합되는 지극히 无妄한 자라고 규정되는데, 不耕穫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六二가 臣下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九五를 聖君, 六二를 賢臣으로 환치시켜 생각하는 것이『정전』이 말하는 耕과 穫의 비

17)『周易傳義大全』,「无妄卦」. '傳' 凡理之所然者, 非妄也, 人所欲爲者, 乃妄也. 故以耕穫菑畬譬之. 六二居中得正, 又應五之中正, 居動體而柔順, 爲動能順乎中正, 乃无妄者也. 故極言无妄之義. 耕, 農之始. 穫, 其成終也. 田一歲曰菑, 三歲曰畬. 不耕而穫, 不菑而畬, 謂不首造其事, 因其事理所當然也. 首造其事, 則是人心所作爲, 乃妄也, 因事之當然, 則是順理應物, 非妄也, 穫與畬是也. 蓋耕則必有穫, 菑則必有畬, 是事理之固然, 非心意之所造作也. 如是則爲无妄, 不妄則所往利而无害也. 或曰, 聖人制作以利天下者, 皆造端也, 豈非妄乎. 曰, 聖人隨時制作, 合乎風氣之宜, 未嘗先時而開之也. 若不待時, 則一聖人足以盡爲矣, 豈待累聖繼作也. 時乃事之端, 聖人隨時而爲也."

유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耕은 中正无妄한 賢人이 聖君이 致敬盡禮하여 자기를 求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임금에게 나아가 등용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인용문 중 ㉮에서 耕이 '농사의 시작'이며 '앞장서서 그 일을 만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人心所作爲의 망령된 것으로 묘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九五와의 관계에서 中正无妄함을 상실한, 따라서 현인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比定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에서는 군신관계를 맺는 '시초'단계가 아니라 이미 군신관계를 맺은 후 臣下의 입장에서 국사를 처리해 가는 모습이다. 즉 국가의 주요사안을 시의에 맞게 立案,稟議하여 처리하는 中正无妄한 신하의 행위로 比定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耕의 ㉮에서의 의미에만 집착한 혹자가 聖人의 경우를 들어 성인의 作爲도 모두 妄이 아닌가 질문하는데 그것은 聖人이 因時制宜하였기 때문에 妄이 아니라는 것이 ㉰의 내용이다. 즉 聖人도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린 연후에 制作한 것이기 때문에 그 耕이 不耕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에서의 耕의 의미를 규정하게 되면 穫의 의미는 각각 聖君이 求하기를 기다려 出仕함, 出仕하여 聖君을 도와 功業을 이룸, 聖人이 때에 맞게 天下를 이롭게 함 등으로 상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③의 훈석들을 검토해 보자. 그러면 혹 효사의 『정전』에 나타난 耕의 의미 변화 면모를 중시해 성급하게 세 가지 훈석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될런지도 모르겠으나 그건 그렇지 않다. 出仕의 첫 걸음을 잘못한 자가 无妄卦 六二처럼 中正无妄한 현인일 수 없고 따라서 ㉯에서처럼 心意의 造作이 없이 事理의 當然함을 遵行할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훈석은 문법적으로도 순리롭지 못하여 '不耕穫'의 타당한 훈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그 두 훈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성립한 것인가? 단적으로 말해 그것들은 효사의 『정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象傳『정전』에 그 훈석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밭갈지 않고서 수확함과 1년된 밭을 만들지 않고서 3년된 밭이 됨은 일의 當然함을 따랐을 뿐이니, 이미 밭을 갈면 반드시 수확이 있고 이미 1년된 밭을 만들면 반드시 3년된 밭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확이나 3년된 밭의 부유함을 기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밭을 갈고 1년된 밭을 만들 적에 마음 가짐이 수확이나 3년된 밭을 구함에 있었다면 이는 부유하려해서이니, 마음에 그러한 욕심이 있었다면 망령된 것이다.[18]

无妄卦 六二 爻辭 象傳의 '不耕穫 未富也'에 대한 위『정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不耕穫을 耕而不穫 혹은 耕而不必穫의 뜻으로 훈석한 ③의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모두 위 주석에 그 훈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훈석들이 온당하다고 간주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小象傳이 개개 효사의 의미에 대해 짤막하게 부연 설명하는 성격이 강한 것처럼 위 주석 역시 효사『정전』의 의미를 보완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을 뿐 그것을 뛰어 넘어 다른 새로운 의미를 유추해 내기에는 무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文面에 明示되어 있진 않지만, 朱子가 이미 不耕穫에 대해 伊川이 '不耕而穫, 耕而不穫, 耕而不必穫의 세 뜻을 말했으나『정전』에 따른다면 不耕而穫이 옳다'[19]고 한 점을 환기해 보면, 퇴계가 석의에서 첫 번째 훈석에 左袒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훈석을 마땅하지 않다고 한 것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정전』과는 달리『본의』에서는 '六二가 柔順中正하여 때에

---

18)『周易傳義大全』,「无妄卦」. '傳 …不耕而穫, 不菑而畬, 因其事之當然, 旣耕則必有穫, 旣菑則必成畬, 非必以穫畬之富而爲也. 其始耕菑, 乃設心在於求穫畬, 是以其富也, 心有欲而爲者, 則妄也."

19) 黎靖德 編,『朱子語類』(中華書局, 1986.), 1800쪽, 1801쪽. "不耕穫一句, 伊川作三意說, 不耕而穫, 耕而不穫, 耕而不必穫.", "不耕穫不菑畬, 如易傳所解, 則當言不耕而穫不菑而畬, 方可."

따라 이치에 순응할 뿐 私意로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 앞에서 작위함도, 뒤에서 기대함도 없다.'[20]고 보아 不耕穫을 밭을 갈지도 수확하지도 않다고 하였고, 석의에서는 '耕ᄒᆞ며 穫디 아니ᄒᆞ며'로 정확히 훈석하였음을 지적해둔다.

3. 象으로 義理를 補翼한 芝山 : 『易象說』

芝山의 『周易』관계 저술로는 『易傳辨解』, 『周易釋解』, 『易象說』 등이 있는데, 이 중 『易傳辨解』와 『周易釋解』는 焚逸되어져 그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周易釋解』를 짓게 되었던 계기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글을 통해 그 대략적인 내용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

> 선생이 비록 校正廳 堂上官의 召命에 나아가진 않았으나, 스스로 주역의 『程傳』과 『本義』로써 彖辭와 象辭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 극도로 정밀하였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諺釋을 經文과 비교해 보니 그 구두와 의미 파악에 오히려 차이가 있었다. 이에 마침내 이 『周易釋解』를 지으니, 모두 5권 이었다.[21]

위 글은 지산이 58세 때인 1602년 月川 趙穆(1524-1606)과 함께 경서 언해의 일로 교정청 당상관의 소명을 받았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역석해』를 짓게 되었음을 표명하고 있는 『年譜』의 注文이다. 이 주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확인, 추측할 수가

---

20) 『周易傳義大全』, 「无妄卦」. '本義 柔順中正, 因時順理而无私意期望之心, 故有不耕穫不菑畬之象, 言其无所爲於前, 无所冀於後也. 占者如是則利有所往矣."

21) 曺好益. 『芝山集』, 부록 권1 「年譜」, 558쪽 下右. (한국문집총간 55, 민족문화추진회, 1990). "先生雖未赴校正命, 自以易之傳與本義, 發揮彖象, 俱極情密, 而舊傳諺釋, 較諸經文, 其句讀旨義, 猶有異同. 遂著是解, 凡五卷." (이하 문집은 『芝山集』,부록 권1 「年譜」, 558下右. 의 형태로 제시하기로 한다.)

있다. 하나는『주역석해』가, 퇴계의『주역석의』처럼, 언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정전』과『본의』의 同異点을 염두에 둔 저술이라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역전변해』가 언해를 고려함이 없이 주로『정전』과『본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경문의 의미를 분별해 낸 저술이라는 추측이 그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易傳辨解』라는 서명의 의미를 음미해보면 쉽게 간취되어질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易傳辨解』의 '傳'은 十翼을 의미한다거나, '辨解'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程傳』만을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인 '註釋·註解'의 의미로 쓰여졌다고 할 수가 있고, 지산에게 있어『주역』의 주석서 가운데 일차적으로 辨解의 필요성과 의의가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는 역시『정전』과『본의』이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辨解의 방법·수준이나 정밀함의 단계가 자신의 마음에 흡족치 못했거나, 아니면 혹 다른 이유로 인해 지산의 병이 위독해졌을 때(55세) 다른 雜稿들과 함께 잘못 불태워졌던 것이다.[22]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위 注文은 일실되어진『주역석해』뿐만 아니라『역전변해』의 대략적인 성격까지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易象說』은『역전변해』나『주역석해』처럼 焚逸되어짐이 없이 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산의 역학사상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일단'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역상설』이 처음부터 체계적인 저술을 목적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산이『주역』을 읽으며 卦·爻辭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板頭에 頭注의 형태로 해명해 둔 것을 後儒들이 옮겨 적음으로써 성립한 것이기 때문이다.[23]『역상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乾卦부터 豐卦까지 55괘와「繫辭

22)『芝山集』, 부록 권1「年譜」, 557下左~558上右. "二月, 病劇, 盡焚平日雜稿. … (中略) … 如易傳辨解儒釋辯等書, 皆不傳, 其他著述, 亦皆後儒撥拾煨燼."

23)『芝山集』, 부록 권1「年譜」, 559上右. "讀周易, 推說彖象疑義. 先生嘗著易傳辨解, 而入於焚稿. 至是, 讀易推明疑義, 貼錄於逐條板頭, 後儒裒集謄出, 謂之易象

傳(上・下)」, 「說卦傳」, 「序卦傳」, 「雜卦傳」의 부분적인 항목에 그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상설』은 21세 때 퇴계에게서 『近思錄』을 강독・질정받고[24] 31세 때 본격적으로 『주역』을 읽은[25]이래 꾸준히 지속되어진 지산의 『주역』연구[26]의 결과를 만년에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까닭에 그의 역학 사상을 규탐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시되어져야 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산은 일찍이 "자신에게는 經傳을 좋아하는 性癖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 經傳들에는 朱子의 『集註』, 『或問』 및 章圖 등이 있어 의리가 정밀하고 訓釋이 상세하여 다시 더 보탤 여지가 없으니 굳이 辭說을 덧붙여, 지붕위에 침상을 더하듯, 쓸데없는 짓을 하였다는 비웃음을 남길 필요가 없다"[27]고 하여 경전에 대한 새로운 義理發明의 여지가 매우 적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易傳辨解』가 불태워졌던 것도 아마 이러한 경전 인식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지산의 知的 潔白性이 그 주된 동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전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지산은 『주역』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은 象을 활용해 『주역』의 經・傳文을 推演・解明하고 그를 통해 義理의 새로운 闡發과 補翼을 企圖하는 것이었다. 『易象說』은 그러한 지산의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 도달한 성과들을 최종적으로 수렴・제시하고 있다. 그 특징적인 면모는 대체로 象을 통해 義理의 새로

推說."

24) 『芝山集』, 부록 권1 「年譜」, 552下左. "同聚遠堂公, 進謁陶山. 按聚遠堂實錄, 講質朱子語類近思錄等書."

25) 『芝山集』, 부록 권1 「年譜」, 554下左. "讀周易."

26) 『芝山集』, 부록 권1 「年譜」, 556上右. "講啓蒙. 金公興宇學撰著等篇.", 558下左. "李惟聖來學. 時李惟弘爲主倅. 與弟惟聖俱登門請業, 講受周易."

27) 『芝山集』, 부록 권2『行狀』, 570下左. "嘗曰, 吾有經傳癖. 又曰, 經傳諸書, 有朱子集注, 又有或問及章圖, 義理之密, 訓釋之詳, 無復餘蘊, 不必贅爲辭說, 以貽架屋疊狀之譏耳."

운 部面을 제기하거나 象에 의해 기왕의 의리적 해석을 보족하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象의 조합을 통해 經·傳文을 해석하는 세 가지 형태로 정리되어질 수 있겠으며[28], 이 중 세 번째 경우는 비록 明示的으로 나타나 있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의리적 해석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면모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象을 통해 의리의 새로운 측면을 제기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乾卦에 나오는 潛龍·見龍·躍龍·飛龍·亢龍 가운데 "亢龍만은 聖人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이니 聖人이라면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는 것〔亢〕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29]이라고 한다거나, 剝卦 卦辭인 '갈 바를 둠이 이롭지 않다(不利有攸往)'에서 '往'의 주체를 陰으로 간주한 점등을 들 수 있겠다.『정전』이나『본의』에서는 박괘가 여러 陰이 長盛하여 陽을 소멸시키는 때인 점을 중시해 '往'의 주체를 陽으로 간주하였는데,[30] 이에 비해 지산은 復卦 卦辭의 '갈 바를 둠이 이롭다(利有攸往)'는 구절과 대비시켜 扶陽抑陰의 차원에서 복괘는 陽의 자라남을 기뻐한 것이고 박괘의 괘사는 陰의 자라남을 경계시킨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31] 이러한 지산의 견해는 박괘 上九의 효사 중 '소인은 오두막집까지도 헐리게 되리라 (小人剝廬)'라는 구절과 연결시켜 음미해 보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의리적 해석이라고 할 수

---

28) 그 외에도 자신이 텍스트로 삼은 판본의 誤字 校勘이나 난해한 글자 풀이,『本意』나 小註 등에 대한 간단한 논평들을 거론할 수 있겠다.

29)『易象說』,「乾卦」(『韓國經學資料集成』88, 易經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773쪽. "上九曰, 亢龍有悔, 何謂也. … (中略) … 獨此爻非聖人, 聖人則不至於亢."

30)『周易傳義大全』,「剝卦」"剝者, 羣陰長盛, 消剝於陽之時. … (中略) 陰盛長而陽消落."

31)『易象說』,「剝卦」, 819쪽. "愚謂, 往指陰往, 於剝言不利, 戒之也, 於復言利, 喜之也. 此扶陽抑陰之義也."

있겠다. 그러나 『역상설』전체를 두고 볼 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象을 통해 의리적 해석을 보족하는 것으로는 隨卦 六二 효사 중 "小子에게 얽매이면 (係小子)"의 '係'를 艮(☶)의 그침(止)이나 손(手)의 象으로 보족하거나[32], 豫卦 六二 효사 중 "절개가 돌처럼 굳은지라 (介于石)"의 '介'가 字義上 '둘 사이에 끼어 있는 分限의 뜻'이 있고 六二가 '즐거움을 떠들어 대는 (鳴豫)' 初六과 '위를 쳐다보며 기뻐하는 (盱豫)' 六三 사이에서 홀로 中位에 있으면서 바름을 지키니 '介于石'의 象이 있다[33]고 해명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것으로부터 卦德과 互體[34] 등을 사용하는 다면적인 형태의 경우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아래의 漸卦 初六 효사 중 "기러기가 물가로 점점 다가 감이니 小子는 위태롭게 여겨 말이 있을 것이다. (鴻漸于干 小子厲 有言.)"에 대한 지산의 주석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卦德으로 말하면 (漸卦는) 위가 공손함(巽)이고 아래가 그침(止)이 되는데 기러기가 날아 갈 적에 어른 기러기와 새끼 기러기가 서로 따르

32) 『易象說』, 「隨卦」, 805쪽. "係, 艮之象. 雙湖曰, 艮手象."

33) 『易象說』, 「豫卦」, 803쪽. "兩間, 謂之介, 介, 分限之意. 六二在初與三之間, 初鳴豫, 三盱豫, 二獨能居中守正, 有介于石之象."

34) 互體란 象數易學에서 象을 취하는 대표적인 방식가운데 하나로써 한 重卦를 '6획의 連續體'로 간주하여 여러 형태의 3획괘를 취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가령 漸卦의 경우 2획에서 4획까지에서 坎(☵)을 취하거나 3획에서 5획까지에서 離(☲)를 취하는 것으로 전자를 下互體, 후자를 上互體라고 한다. 지산이 사용했던 호체의 종류에는 이외에도 3획괘를 180도 돌려서 다른 하나의 3획괘를 추출하는 反體, 3획괘의 음획·양획을 모두 반대획으로 만들어 얻어지는 伏體, 그리고 중간에 있는 多數의 음획이나 양획을 하나의 음획이나 양획으로 압축해서 象을 취하는 大體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졸저:『茶山의 周易解釋體系』(경인문화사, 2003) 66쪽~79쪽을 참고할 것. 다만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용어상에 있어 지산의 反體가 다산의 경우에는 倒體로 명명되어져 있고, 복체에 있어 다산은 卦位에만 관련되어져 있음을 첨언해 둔다.

고, 무리지어 있으면서도 질서가 있어 어른 기러기는 반드시 새끼 기러기를 기다리니 위가 공손한 象이 있는 것이요, 새끼 기러기는 반드시 어른 기러기의 뒤를 따르니 아래가 그쳐 있는 象이 있는 것이다. 互體로 말하면 坎이 아래에 있는데 坎은 물이 되고 離가 위에 있는데 離는 새가 되니 물새(水鳥)의 상이 있으므로, 卦德과 互體를 합하여 기러기의 象을 취한 것이다. '干'은 물가인데 2효부터 4효까지의 호체가 坎이니 물가의 象이 있고 '小子'는 艮이 少男이므로 小子의 象이 있는 것이다. '有言'은『春秋左氏傳』에 艮을 言으로 삼았기[35]때문인데, 혹자는 '艮이 伏體인 '兌의 口'의 象이다.' 하였다.[36]

漸卦 諸爻辭에서 '기러기'의 象이 취해진 연유에 대해『程傳』이나『本義』에서는 기러기가 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있고 점진적이며 무리에 질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37] 위의 인용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지산은 그러한 의리적 해석을 卦德으로 수렴하면서 거기에 互體의 象을 결합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효사의 '干', '小子', '有言' 등의 어휘들에 대해 八卦의 物象과 互體·伏體의 상, 그리고『春秋左氏傳』의 용례를 활용하여 象數易學的으로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陰弱한 六이 初位에 있고 正應이 없는 것에 의해 효사의 의미를 규정하는 의리적 해석을 보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 漸卦 初六의 경우는 지산의 象을 통해 의리를 보족하는 해석방식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간주하여도 좋을 것이다.

지산의『易象說』속에는 앞의 두 가지 유형보다는 세 번째 유형, 즉 明示

35)『春秋左氏傳』, 昭公五年, 叔孫豹之筮條.

36)『易象說』,「漸卦」, 901쪽~902쪽. "愚謂, 以卦德言, 則上巽下止, 鴻之行, 長幼相隨, 羣而有序, 長必俟幼, 有上巽之象, 幼必後長, 有下止之象. 以互體言, 則坎在下, 坎爲水, 離在上, 離爲鳥, 有水鳥之象, 合卦德互體, 取鴻象. 干, 水涯, 二至四互坎, 有水涯之象, 小子, 艮少男, 有小子之象. 有言, 左傳以艮爲言, 或曰, 艮伏兌口象."

37)『周易傳義大全』,「漸卦」. "漸諸爻皆取鴻象, 鴻之爲物, 至有時而羣有序, 不失其時序, 乃爲漸也. … (中略) … 鴻之行有序而進有漸."

的으로 의리적 해석의 특징을 제기함이 없이 순전히 象數易學的인 해석의 성격이 두드러진 형태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해석이 의리적인 측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무리 象數易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取象方式을 정치하게 운용해 象을 추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象들의 결합을 통해 경·전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暗默的으로 浹洽되어졌던 의리적 해석에 의해 논리가 구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역상설』자체가 『주역』을 읽으며 頭注의 형태로 기록되어진 것을 기반으로 성립되었고, 지산이 새로운 의리의 발명에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지녔던 사실을 환기해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예로는 漸卦 九三 효사 중 "남편이 나아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부인이 잉태하더라도 기르지 못하여 凶하리니,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 (夫征 不復 婦孕 不育 凶 利禦寇.)"에 대한 지산의 주석을 들 수 있겠다.

> 내가 생각건대, 彖辭에서 '올바라서 이롭다.(利貞)'고 한 것은 卦變[38]으로 말한 것이고, 爻辭에서 凶하다고 한 것은 卦體로서 말한 것이다. 卦變으로 말하면 (否卦의 하괘인 — 필자:이하 같음) 坤의 三이 四로 가서 있고 (否卦의 상괘인) 乾의 四가 三으로 와서 있어 男女가 각각 그 正을 얻으나, 卦體로 말하면 艮과 巽은 짝(耦)이 아니며 三과 四는 應의 관계가 아니어서 夫婦가 不正한 象이 되기 때문이다.
>
> 三은 본래 (否卦의 상괘인) 乾의 四이었으니 가면 乾體로 돌아가는 것이고,

38) 卦變은 卦의 음획과 양획이 升降往來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크게 重卦인 64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單卦인 八卦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乾坤生六子說의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본의』는 전자에, 『정전』은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산은 괘·효사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卦와 卦 상호간의 변화 이론뿐만아니라 한 괘 안에서 해당 효의 陰·陽을 바꾸어서 象을 취하는 爻變을 간혹 사용하기도 하였다. 卦變과 爻變에 대해서는 졸저:상게서, 52쪽~65쪽과 80쪽~97쪽에 상론되어져 있음.

四는 본래 (否卦의 하괘인) 坤의 三이었으니 오면 坤體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아감(征)'은 三이 四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니 이미 제자리로 돌아갔으므로 돌아오지 못하는 象이 있는 것이요, 三이 四로 나아가면 한 陽을 감싸서 (한 陽이) 가운데에 있게 되어 '잉태(孕)'의 象이 있고 三에서 물러나면 陽을 잃으므로 '기르지 못하는(不育)' 象이 있는 것이다.

'禦寇'의 禦는 艮의 손(手)의 象이고 寇는 互體인 坎의 象이다. 호체인 坎이 下體인 艮과 이어져 있으니 도적이 門庭에 있는 象이 있고, 艮의 손(手)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저지하니 '도적을 막는 (禦寇)' 象이 있는 것이다.[39]

卦變에 의하면 漸卦는 否卦로부터 유래되어진 것으로, 否卦에서는 六三과 九四가 획과 位의 陰陽이 맞지 않는 不正이었던 것이 漸卦로 변하여서는 九三과 六四라는 正으로 바뀌게 되는데, 漸卦 彖辭의 '利貞'은 그러한 卦變의 결과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卦變의 결과 비록 九三과 六四가 효의 차원에서는 正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漸卦라는 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괘가 巽(☴), 하괘가 艮(☶)이 되어 상·하괘가 짝(耦)으로서는 서로 걸맞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不相稱의 樣態를 표출하기 위해 九三 효사 가운데, 단사의 '利貞'과 반대되는 의미를 띠고 있는, '凶'이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위 인용문 중 단사의 '利貞'과 효사의 '凶'을 卦變과 卦體로써 설명한 지산의 견해는 바로 그러한 관점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산은 뒤이어 단지 卦體의 相違뿐만 아니라 九三과 六四가 應이 아니므로 不正한 夫婦의 象이 있다고 하여 다시 卦變과의 연계 속에서

39)『易學說』,「漸卦」, 903쪽~904쪽. "愚謂, 彖言利貞, 以卦變言, 爻言凶者, 以卦體言. 以卦變言, 則坤之三往居於四, 乾之四來居於三, 男女各得其正, 以體言, 則艮巽非耦, 三四非應, 爲夫婦不正之象. 三本乾之四, 往則復乾體, 四本坤之三, 來則復坤體. 征指三之歸四, 旣還其居, 故有不復之象, 三進於四, 則包一陽在中, 有孕之象, 退於三, 則失陽, 故有不育之象. 禦寇禦, 艮手象, 寇, 互坎象. 互坎連下體艮, 有寇在門庭之象, 艮手在內而止之, 有禦寇之象."

'凶'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즉 漸卦의 九三과 六四는 否卦의 六三과 九四가 升降往來하는 과정을 통해 正을 얻게 되었지만 이미 漸卦로 변화된 단계에서 보니 그 '正'이 완전한 正이 아니어서 다시 또 자체내의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다시 말해 九三과 六四는 卦變에 의해 획과 位의 陰陽이 일치하는 正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똑 같은 이유로 양자는 過剛躁動하거나 陰柔柔弱하여 正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성격까지 함께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자신들과 應의 위치에 있는 上九와 初六이 모두 敵應의 관계에 있는지라, 九三과 六四는 應은 아니나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不正하게 서로 연결되어질 위험성이 농후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효사에서는 그러한 不正한 결합의 위험성을 비유적으로 '夫征不復 婦孕不育'이라고 표현하여 凶의 실질적인 이유로 지목하고, 九三이 자신의 正을 굳게 지키며 六四의 접근을 막는 것이 이롭다는 경계의 의미로 '利禦寇'라는 말을 凶의 뒤에 위치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석에서 지산이 九三과 六四가 正應이 아닌 不正한 夫婦의 象이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卦變과 互體의 象을 통해 드러내고, 漸卦의 下體인 艮과 下互卦인 坎의 象을 논리적으로 조합하여 '禦寇'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九三이 갖는 이러한 正·不正의 성격과 가능성을 깊이 고려한 뒤에 성립되어졌음을 쉽게 간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의 漸卦 九三 효사에 대한 지산의 주석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象數易學的인 卦變이나 互體 등의 取象方式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엄연히 義理易學的인 論理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성격은 지산의 다른 卦에 대한 주석의 讀解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져야 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 象을 통해 『주역』의 경·정문을 풀이하는 지산의 해역방식과 관

련해 그가 경·전문에 등장하는 특정한 사물이「說卦傳」에 제시되어진 八卦의 象속에 속해 있지 않을 경우, 그 사물을 八卦에 배속함에 있어 어느 한 卦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괘에 배속시킴으로써 象을 취하는데 있어 매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예로는 履卦의 彖辭, 六三·九四 爻辭와 頤卦 六四 爻辭 등에 보이는 '호랑이(虎)'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지산은 履卦에서는 虎를 乾(☰)이나 兌(☱)의 象으로 각각 달리 간주하였다. 특히 履卦에서는 '虎'를 乾의 象으로 보느냐 兌의 象으로 보느냐에 따라 卦·爻辭의 의미가 능동과 피동으로 달라지는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40] 지산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별도로 경문을 두 번 註解함으로써 그러한 섬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산이 괘·효사의 해석에 있어 매우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象들을 운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特記할 만 하다.

4. 맺는 말

본고는『周易』解釋과 관련해 퇴계의『周易釋義』와 지산의『易象說』이 갖는 특징적인 면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를 통해 退溪學派의 易學思想的 特性의 一端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해온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갖는 硏究史的 意義를 간단히 논하는 것으로 부족하나마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퇴계의『周易釋義』가 갖는 일차적인 의의는 먼저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40)『易象說』,「履卦」, 786쪽. "虎, 取乾象. 巽在下, 有履尾象. 不咥, 取兌說象, 莊子曰虎媚養己者順, 是也. 人, 指巽體, 雙湖曰以二體言則二人, 六爻言則六人, 是也. ○虎, 取兌象. 初爲首, 三爲尾, 乾乘兌, 有履尾象. 不咥, 乾剛兌弱之象, 如馮婦之徒, 豈有見咥之理. 人, 指乾體. 惑曰兌偶畫是口象, 有蹲虎之象, 乾在背而躡之, 有履尾象."

찾아질 수 있겠다. 즉 퇴계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구해볼 수 없는 당대 학자들의 『주역』경·전문에 대한 훈석을 다수 聚輯함으로써 당시의 대체적인 『주역』연구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周易傳義大全』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경·전문을 譯解하는 작업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퇴계가 그 속에 『정전』과 『본의』에 대한 엄밀한 해독을 바탕으로 한 적지 않은 분량의 釋義를 부기함으로써 『주역』을 학문적으로 定礎·土着化시키는, 의미있는 기여를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釋義의 근본 목적이 『정전』과 『본의』에 의거한 정확한 언해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성과가 현재까지도 존중되어질만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산의 『易象說』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순수한 학자적 자세를 견지한, 다시 말해 독실한 의리역학의 기반 위에서 象을 통해, 비록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역』의 경·전문을 성공적으로 해석해 내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象數論者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陰陽五行이나 災異와 같은 數術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조선의 역학사에 있어 흔치 않은 象 위주의 經學的 저술이라는 점이다. 恣意可能性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象을 통해 義理를 補翼하였다는 점에서 지산의 解易方式은 퇴계학파 내의 역학사상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간주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李滉,『增補退溪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_____,『退溪集』, 한국문집총간 29-31, 민족문화추진회, 1989.
啓明漢文學硏究會 편,『退溪學文獻全集』, 1991.
曺好益,『芝山集』, 한국문집총간 55, 민족문화추진회, 1990.
_____,『易象說』,『韓國經學資料集成』 88, 易經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賈順先,「李退溪의 儒家 經學에 대한 繼承과 發展」,『退溪學報』 제90집, 퇴계학연구원, 1996.
金慶天,「退溪의 經典認識」,『退溪學報』 제110집, 퇴계학연구원, 2001.
金映鎬,「李退溪『四書釋義』에 나타난 經學的 特徵」,『退溪學報』 제110집, 퇴계학연구원, 2001.
金麟哲,『茶山의 周易解釋體系』, 경인문화사, 2003.
崔錫起,「退溪의『詩釋義』에 대하여」,『退溪學報』 제95집, 퇴계학연구원, 1997.
_____,「조선 전기의 經書解釋과 退溪의『詩釋義』」,『退溪學報』 제92집, 퇴계학연구원, 1996.
琴章泰,「芝山 曺好益의 사상」,『退溪學派의 思想I』, 集文堂, 1996.
嚴連錫,「曺好益 易學의 象數學的 방법과 義理學的 목표」,『大東文化硏究』 제38집, 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硏究院, 2001.
韓國周易學會 編,『周易과 韓國易學』, (주)범양사출판부, 1996.

논문투고일 : 2004.12.30 심사시작일 : 2005.1.6 심사완료일 : 2005.1.18

Abstract

Interpretation of Chou-i by Toegye and Jisan

Kim, In-Cheol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features of Toegye(退溪)'s school in interpreting Choi-i by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style shown in Chou-i shi yi(周易釋義) of Toegye and Yi hsiang shuo(易象說) of Jisan Cho Ho-ik(芝山 曺好益:1545-1609). The features can be summarized as precise translation based on moral interpretation and complementing moral principle with symbolic image or hsiang(象). This is because Chou-i shi yi is characterized as focusing on moral principle as the explanation is primarily based on Cheng chuan(程傳) case Toegye's commentary does exist. On the contrary, Yi hsiang shuo of Jisan interprets Chou-i by complementing moral principle with symbolic image because its interpretation is mainly generated by moral-principle science of I(義理易學) logic even though it interprets the annotations on hexagram-lines based on multiple the emblemo-numeroloy of I(象數易學) method.

Chou-i shi yi is significant in that it enables understanding the direction and quality of Chou-i study of Toegye's time and academically laid the foundation of and settled Chou-i. Yi hsiang shuo is significant in that it achieved a positive development of the study of Chou-i. This assessment was made based on such features of Chou-i shi yi and Yi hsiang shuo.

Key Word

Toegye, Jisan, Chou-i, Chou-i shi yi, Yi hsiang shuo, Toegye's school, moral-principle science of I, emblemo-numeroloy of I, Cheng chuan, hsiang